

< 제 2 장 >

요 2:1-11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표적”(σημεῖον, 세메이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과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초점이 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단지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계시적 행위였으며, 이것이 표적의 본질이다. 요한은 이 사건의 결론을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11절)라고 기록함으로써 표적의 목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어 믿음으로 이끌고 결국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이다.

요 2:3-4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γυνή, 귀네)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존칭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신 표현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를 넘어 메시아 사역의 차원에서 부르신 호칭이다.

이는 이제 사역의 기준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 계획에 있음을 드러낸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거절의 의미라기보다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밝히시는 표현이다. “내 때”(ἡρα, 호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이고 구속사적인 시점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현실적 필요를 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사역이 드러날 때를 바라보고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연결되며, 모든 표적은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계시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사역하신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요 2:5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였다. 여기서 순종은 이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요 2:6-7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였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옛 정결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율법의 정결은 외적인 씻음에 머물렀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은 내적 변화와 생명의 변화로 나아간다.

“아귀까지 채우라” 하신 것은 기적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완전한 준비를 의미한다. 이 과정을 지켜본 자들은 하인들과 제자들이었으며 특히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자들의 믿음>

① ‘πιστις’(피스티스, 명사)는 믿음(Faith), 곧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존재적 신뢰, 곧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πιστεύω’(피스튜오, 동사)는 믿다(Believe)라는 뜻으로 마음에 있는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신뢰에 이른 단계라기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초기적 믿음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계시를 통해 시작된 믿음이며 이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점차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한 감동이나 이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된다.

<기적의 순서>

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명령은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였고,

② 하인들이 물을 채운 것은 순종이었으며,

③ 갖다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옮긴 것은 행함이었고

④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표적은 드러나지 않으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그 표적은 인간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연회장에 가져다준 하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요 2:13-22 첫 번째 성전정화

성경에는 성전정화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며, 두 번째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공생애 말기에 무화과나무 사건과 함께 나타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와 메시지에서 구속사적 의미의 차이를 가진다.

<성전 정화의 차이점>

첫 번째, 성전 정화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상행위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인간의 이익과 종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책망하신 것이며,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예배가 인간 중심의 종교 체계로 왜곡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책이다. 이는 단순한 성전의 정화가 아니라 기존 유대 종교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이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물리적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정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성전 정화는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종말론적 선언의 성격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셨다. 첫 번째 정화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신 표현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약의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중심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고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전환된다.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단순한 정화 사건을 넘어 옛 언약의 종결과 새 언약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는 데 있다.

요 2:17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거룩한 감정이나 열정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그 결과를 함께 드러내는 선언이다.

여기서 ‘열심’(ζήλος, 젤로스)은 단순한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적인 헌신과 집중된 사명 의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열심은 동시에 왜곡된 종교 체제와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종교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으며, 그들의 열심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왜곡된 열심이었다.

예수님의 성전 회복은 바로 이 거짓된 종교적 열심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돌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점차 대적과 핍박으로 이어져 결국 십자가에 이르는 길로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바로 세우려는 메시아의 사명이 거짓된 종교 체제 속에서 소모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며 시69편의 고난받는 의인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된다.

요 2:23-25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생긴 일시적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 고백이나 순간적인 감동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믿음과 참된 신뢰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기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적 믿음이다.

<요한복음 2장>

표적과 성전 정화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이 드러나는 장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시작이며, 성전 정화는 왜곡된 종교를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또한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일시적 반응에 머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으로서 참된 믿음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이 장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약에서 “테라스” 16회 (기적: 1회 / 기사: 15회).

“세메이온” 77회 (표적: 69회 / 이적: 8회)

1. 기적 / 기사(τέρας 테라스. Miracle) : 놀라운 일. 불가사한 일.

-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현상.
- 신들로부터 오는 표징을 의미.
-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 성도들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한다.

2. 이적(異蹟)

-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3. 표적(σημειον 세메이온 sign. Target)

-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
- 표적은 기적과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뜻하는 바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
-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 표적이란 기적을 일으킨 목적의 본질을 말한다.
- 표적의 본질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어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 = 목표물(Target) = 구원 = 하나님 나라)

(표적: 마태 6. 마가 4. 누가 5. 요한 17. 행전 12. 고전·후 3. 살후 1. 히브 1. 계 1 = 50회)

(기사/기적: 마태 1. 마가 1. 요한 1. 행전 9. 로마서 1. 고후 1. 히브 1. 살후 1 = 16회)